

스마트팜-건설업계 손잡고 해외 동반진출 추진

- 국토부·농식품부, 스마트팜·건설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모델 발굴 및 수주 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 세미나 및 업계 관계자 간담회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)는 6월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(aT)센터에서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와 협력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.
 -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 간 협력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- '23년 3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해외건설협회는 양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수출 상생협력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 바 있다.
 - 이번 행사에 참석*하는 협회와 기업들은 해당 업무협약(MOU)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업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.
 - * (정부) 국토부, 농식품부, (협회) 해외건설협회, 한국엔지니어링협회,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(건설기업) 현대건설, 도화엔지니어링, 간삼건축, 무영CM (스마트팜기업) 만나CEA, 농심, 이수화학, 플랜티팜, 엔씽 등
- 먼저, 협력 세미나에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'23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K-스마트팜 수출·수주 성장세를 강조하였다.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·엔지니어링 업계의 경험과 현지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두 산업 모두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.
 -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K-스마트팜을 차별화된 수주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마트팜 기업에 정보 공유 활성화도 요청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팜 기업 만나CEA와 건설기업 도화엔지니어링 간 해외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.
 - 두 기업은 중동시장 수주 협력 업무협약(MOU)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, 농식품부의 ‘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’에 참여하였다.
 - 그 결과, 지난달 총 483만불(약 66억원)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-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“이번 행사를 계기로 건설업계와 스마트팜 업계 간 동반 해외진출 사업모델을 본격 추진하여 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며,
 - “앞으로도 해외 진출 경험이 많은 우리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, 해외건설 수주의 저변도 확대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“우리 스마트팜 업계가 경험 많은 건설업계와 협력한다면 수주 규모 확대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로 양 업계 간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,
 - “앞으로도 양 업계 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해외 진출 협력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신형 (044-201-3516)
		담당자	사무관	정원림 (044-201-3520)
(총괄)	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박은영 (044-201-2471)
		담당자	사무관	주준현 (044-201-2477)